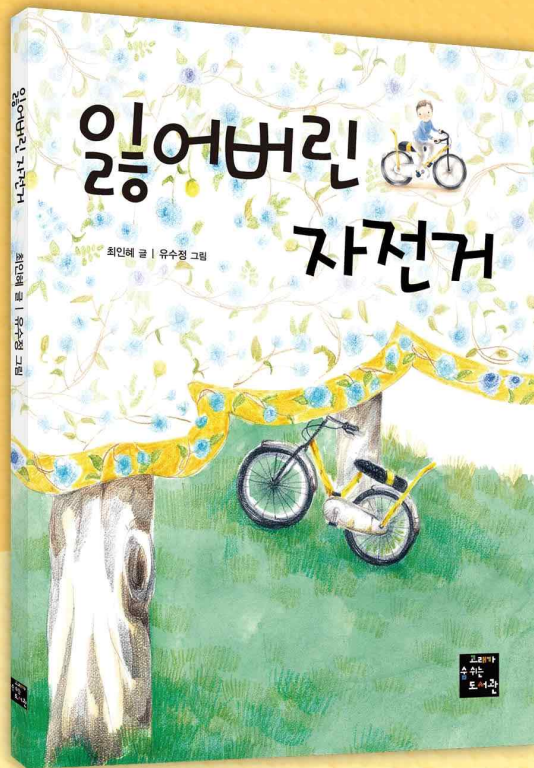


3학년

독서 수업 지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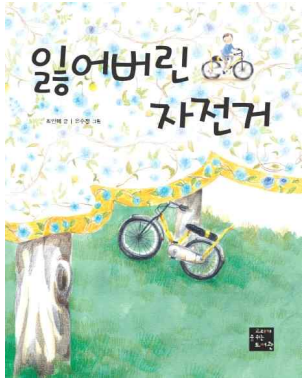
학생용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최인혜 글 | 유수정 그림 | 고래가숨쉬는도서관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



잃어버린 자전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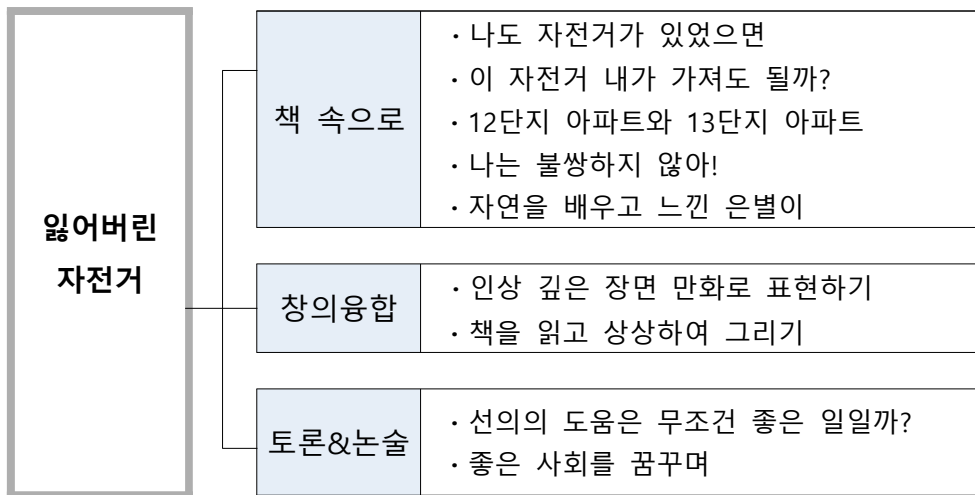
- * 글 : 최인혜
- * 그림 : 유수정
- * 출판사 : 고래가숨쉬는도서관
- * 정가 : 10,000원
- * 분량 : 92쪽
- * 대상 : 초등 3학년

· 책 소개

이 책은 『내 마음 속에 들어온 낯은 자전거』의 개정판으로, 두 편의 단편동화 『잃어버린 자전거』와 『참새가 없어졌어요』가 실려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전거』는 마음을 나누고 사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자전거로 인해 생기는 일들, 만나게 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섬세하게 그려 낸 작품이고, 『참새가 없어졌어요』는 야생 동물의 삶과 사람과 야생 동물과의 관계를 들려주는 작품입니다.

· 독후활동 주제망



교안 개발 : 허니에듀

★허니에듀는 '공부가 꿀처럼 달콤한 세상'을 꿈꾸는 교육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유초등청소년 교육커뮤니티 '허니에듀'와 멤버십 서비스 '허니에듀북클럽'을 운영하며 다양한 독서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허니에듀밴드 : band.us/@honeyedu
- 허니에듀카페 : <http://cafe.naver.com/honeyedu>



독서 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잃어버린 자전거』의 책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써 보세요.

번호	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예)	(앞표지 그림을 보고) 누가 잃어버린 자전거일까?
①	
②	
③	

2. 『잃어버린 자전거』의 책 표지를 보고 책의 내용을 자유롭게 상상한 다음, 책에 나오는 인물의 성격, 일어날 사건, 사건이 펼쳐질 배경 등을 예상하여 써 보세요.

	책 표지를 보고 예상하기
나오는 인물의 성격	(예) '나'는 생각이 많고 소심한 성격일 것이다. · ·
일어날 사건	(예) '나'는 자전거를 주워 왔는데 자전거를 훔쳐 왔다고 의심을 받아 곤란을 겪을 것이다. ·
사건이 펼쳐질 배경	(예) 꽃이 피고 날이 포근한 늦봄. 잔디밭과 숲이 있는 시골의 작은 마을일 것이다. ·



독서 중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 인상 깊은 장면을 떠올리며 책 읽기

※ 『잃어버린 자전거』를 읽으면서 인상 깊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세요.

· 어느 부분이 인상 깊은가요?

⇒ (예) 12쪽 내 기억 속에 엄마는 늘 누워 계신다. 잠깐씩 앉아 계시다가도 금방 누우신다. 누런 얼굴만 봐도 아프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 그래서 엄마 앞에서는 어리광 한번 부려 보지 못했다.

· 어떤 점이 특히 인상적인가요?

⇒ (예) 어리광도 부리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사달라고 울고 떼쓰며 매달려 보고도 싶을 텐데, 아프신 엄마를 생각해서 그러지 않는 '나'의 태도가 어른스러운 것 같다. 일찍 철이 든 준일이의 모습이 안타까우면서 기특하다.

· 어느 부분이 인상 깊은가요?

⇒

· 어떤 점이 특히 인상적인가요?

⇒

· 어느 부분이 인상 깊은가요?

⇒

· 어떤 점이 특히 인상적인가요?

⇒

· 어느 부분이 인상 깊은가요?

⇒

· 어떤 점이 특히 인상적인가요?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나도 자전거가 있었으면

(1~3) 다음 글을 읽고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난 ‘할머니’의 마음과 ‘나(준일)’의 마음을 파악해 봅시다. 물음에 알맞게 답하세요.

(가) 나는 저녁을 먹으며 할머니에게 자랑했다.

“나 자전거 잘 탄다!” / “자전거가 어디 있는디?” / “응, 태민이 거.”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어이구, 남들 다 가진 자전거 하나 못 사 주구.”

이번에 하나 사 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밥이 목구멍을 꼭 메웠다. 나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엄마는 말없이 내 손가락에 반찬을 올려놨다. ㉡나는 끝내 사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밥만 먹었다.

(나)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전거를 타는 기분이다. 바람이 이마를 스칠 때 그 상쾌한 기분은 생각만 해도 짜릿하다. 나는 누운 채로 발을 높이 쳐들고 신나게 굴렀다. 숨이 차고 허벅지가 당기는 것이 정말 자전거를 타는 것 같다.

㉢‘나도 자전거가 있었으면…….’

1. 윗글 (가)에서 할머니의 말 ㉠에 담긴 마음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 ① 아프다고 누워만 있는 태민이 엄마에 대한 원망
- ② 손자(‘나’)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
- ③ 철없이 자전거 이야기를 계속하는 손자(‘나’)에 대한 서운함

2. 윗글 (가)에서 ‘나(준일)’가 ㉡처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3. 윗글 (나)에서 밑줄 친 ㉢의 줄임표에 들어갈 말을 써보세요.

⇒

4. 간절히 자전거를 갖고 싶은 ‘나(준일)’의 마음이 잘 드러난 부분을 책에서 더 찾아서 써 보세요.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이 자전거 내가 가져도 될까?

(1~2) 다음 글을 읽고 ‘나(준일)’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속마음과 성격을 파악해 봅시다. 물음에 알맞게 답하세요.

(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놀이터로 들어갔다. 그네에 털썩 주저앉아 숨을 고르는데 그늘진 구석에 쓰러져 있는 자전거가 눈에 들어왔다.

‘누가 잠깐 놓고 어디 갔나?’

나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아무도 없다. 천천히 자전거 앞으로 다가갔다. 자전거는 때에 찌들고 흙이 묻어서 그런지 낡아 보였다.

‘누가 버렸나?’

자전거를 세워 끌어 보았다. 스스스~. 소리를 내며 바퀴가 굴러간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자전거를 끌고 다니니 꼭 내 자전거 같다. 나는 자전거를 끌고 놀이터를 한 바퀴 돌았다. 누군가 쫓아와 자전거 내놓으라고 소리칠 것 같아 가슴이 벌렁거린다. 얼른 자전거를 있던 자리에 놓고 슬그머니 그네에 앉았다.

(나) ‘누가 버리고 간 건지도 몰라. 낡은 자전거잖아. 내가 끌고 갈까?’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러다 자전거 주인이 나타나면 나더러 도둑놈이라고 할 거야.’

자전거를 보면 볼수록 자꾸 가슴이 뛰었다. 어둠은 점점 더 짙어졌다.

‘그냥 들어갈까?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지.’

나는 그네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며 놀이터를 서성였다.

1. 윗글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세희 : (가)에서 ‘나(준일)’는 자전거를 훔치려고 놀이터로 들어갔어.
- 민준 : (가), (나)에서 ‘나(준일)’의 성격이 단순하고 뻔뻔함을 알 수 있어.
- 혜리 : (나)에서 ‘나(준일)’는 자전거 도둑으로 오해받을까봐 걱정하고 있어.
- 도진 : (나)에서 ‘나(준일)’는 자전거 주인이 오기 전에 빨리 자전거를 가져가려고 해.

2. 윗글 (가), (나)에 드러나는 ‘나(준일)’의 마음속 갈등을 정리해 보세요.

⇒

VS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12단지 아파트와 13단지 아파트

(1~3) 다음 글을 읽고 ‘나(준일)’가 사는 아파트와 은기가 사는 13단지 아파트를 비교해 봅시다. 물음에 알맞게 답하세요.

(가) 13단지라는 소리에 가슴이 짝 막혔다. 분명히 내가 가져온 것이라고 의심할 것이다. 13단지 엄마들은 애들이 우리와 어울리는 걸 싫어한다. 13단지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 집에 놀러 가면 처음 한두 번은 반겨 준다. 그러나 몇 번만 가면 못마땅한 듯 본체만체한다. 그러다가 학원 갈 준비해야 한다, 학습지 해야 하니 다음에 놀라며 계속 내몰았다. 그리고 나면 13단지 친구들과는 자연스레 멀어졌다.

(나) 우리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 엄마나 아빠가 없는 집도 많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는 애들도 있다. 엄마가 있어도 새벽에 일을 나갔다 한밤에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침도 안 먹고 학교에 다닌다. 옷을 갈아입지 않아 냄새나는 아이도 있고 세수도 안 하고 오는 아이들도 있다. 그래서 반 아이들은 가까이 하길 꺼린다. 특히 놀리고 심하면 따돌리기도 한다. 나도 사실 씻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아 냄새나는 아이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그러면서도 속상하다.

‘저 모양이니까 우리 동네 아이들을 싸잡아 이상하게 보지!’

1.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13단지에 사는 사람들의 가정환경에 대해 추측하여 표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12단지(준일이네 아파트)	13단지(은기네 아파트)
임대 아파트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산다.	
엄마나 아빠가 없는 집도 많다.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는 아이도 있다.	

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준일이네) 단지 아이들’에 대한 ‘13단지 엄마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

3. 윗글 (가)에 나타난 13단지 엄마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④ 나는 불쌍하지 않아!

(1~2) 다음 글을 읽고 ‘나(준일)’가 사는 아파트와 은기가 사는 13단지 아파트를 비교해 봅시다. 물음에 알맞게 답하세요.

(가) 자전거를 낡은 자전거가 있던 자리에 갖다 놓고 싶었다. 못마땅한 눈초리로 바라보며 자기네 아이와 못 놀게 하던 것보다, 내가 자전거 도둑이라고 의심받는 것보다 불쌍한 아이가 된 것이 더 기분 나쁘다.

나는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고생하는 할머니나 늘 아픈 엄마를 보면 불쌍한 맘이 들지만 나까지 불쌍한 것은 아니다.

(나) “나는 우리 은기가 뭐 주워 오면, 무조건 있던 자리에 갖다 놓고 오라고 야단만 치지 주인을 찾아 줘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 그것이 새 거든 헨 거든 보지도 않고 말이야.”

“정말 기분 나빴구나? 받을 사람 기분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 생각만 해서 미안하다.”

1) 만약 여러분이 ‘나(준일)’의 친한 친구이고, 준일이 (가)에 나타난 ‘나(준일)’의 속마음을 여러분에게 털어놓는다면, 준일에게 뭐라고 말해줄지 써 보세요.

⇒

2) (나)는 ‘은기 엄마’가 ‘나(준일)’에게 한 말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은기 엄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는지 써 보세요.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⑤ 자연을 배우고 느낀 은별이

1. ‘참새가 없어졌어요’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나타낼 때, 각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참새가 (①) 밑에 등지를 틀고 알을 낳고 품어 새끼를 깹니다. 그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먹이를 물어오고 나중에는 새끼들이 커서 날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처진 놈이 (②) 에 떨어져 꿈틀댁니다. 주인공 은별이는 그 새끼를 주워 키웁니다. 그러나 참새 새끼는 은별이가 주는 먹이는 먹지 않고 (③)가 물어다 준 먹이를 먹고 기운을 내 날아가 버립니다.

2. 등장인물이 겪은 사건을 내가 겪는 것처럼 일기로 써 보면 그 인물이 한 행동이나 말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별이가 되어 일기를 써 봅시다. 단,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은별이가 겪은 사건과 그 일을 통해 느끼고 생각한 점이 잘 드러나도록 쓰세요.

위의 과정을 보면서 은별이는 자연을 배우고 느낍니다. 야생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무서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압니다. 또 “제비는 새끼를 버리고 가도 참새는 새끼를 버리지 않는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철새와 텃새의 차이도 알아 갑니다. 살아가는 조건에 따라 새끼를 갈무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따라서 처진 새끼를 버리고 가는 제비를 비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 갑니다.

년	월	일	요일	날씨 :
제목 :				



독서 후 창의융합_ ① 인상 깊은 장면 만화로 표현하기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인상 깊은 장면 표현하기

인상 깊은 장면을 컷만화로 표현하는 것은 그림을 통한 전달이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고, 요약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1~2) ‘잃어버린 자전거’ 또는 ‘참새가 없어졌어요’에서 인상 깊은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1. 책을 읽으면서 정리한 인상 깊은 부분(앞의 3페이지에 정리한 것) 중에서 하나를 뽑아 3컷 만화로 표현해 보세요.

①	②	③
---	---	---

2. 책을 읽으면서 정리한 인상 깊은 부분(앞의 3페이지에 정리한 것) 중에서 또 다른 하나를 뽑아 4컷 만화로 표현해 보세요.

①	②
③	④



독서 후 창의융합_ ② 책을 읽고 상상하여 그리기

1. 은기 어머니가 준일에게 자전거를 선물하면서 카드를 만들어서 보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서 카드를 만들어 글을 써 보세요.

2. 내가 가지고 싶은 자전거가 있다면 그 자전거를 그려 보세요.



독서 후 토론&논술_ ① 선의의 도움은 무조건 좋은 일일까?

※ 다음은 '잃어버린 자전거'의 본문 일부입니다. 이 글에 나타난 사건을 참고로 하여, 좋은 뜻으로 남을 도와주면 그것은 무조건 좋은 일일지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나 그거 안 타!”

“뭘 소리랴. 그동안 자전거 갖구 싶댔잖여. 고마운 마음으로 타 주는 게 보답하는 길이구먼.”

우리 집을 두리번거리던 아이와 안됐다는 듯 혀를 꼰꼰 차며 바라보던 아줌마를 생각하면 공연스레 화가 났다. (중략)

자전거를 밖에 내놓으려고 하자 엄마가 불렀다.

“준일아, 그냥 타. 자전거 없으니까 친구와 놀 수도 없잖아. 큰맘 먹고 선물해 주셨을 텐데 그 마음을 받아 주는 것도 예의다.”

엄마는 힘이 드는지 눈을 감으며 다시 자리에 누웠다.

나를 불쌍하게 여기잖아!

자전거를 낡은 자전거가 있던 자리에 갖다 놓고 싶었다. 못마땅한 눈초리로 바라보며 자기네 아이와 못 놀게 하던 것보다, 내가 자전거 도둑이라고 의심받는 것보다 불쌍한 아이가 된 것이 더 기분 나쁘다.

나는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고생하는 할머니나 늘 아픈 엄마를 보면 불쌍한 맘이 들지만 나까지 불쌍한 것은 아니다.

좋은 뜻으로 남을 도와주면 무조건 좋은 일일까?

좋은 일이다
근거 :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근거 :



독서 후 토론&논술_ ② 좋은 사회를 꿈꾸며

※ 다음 글을 읽고, '잃어버린 자전거'에 나온 인물들의 상황과 연관 지어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써 보세요.

(도움말) 준일이의 입장에서 자신의 처지가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회일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 고통스러워합니다. (중략)

(나) 이런 불공평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바뀌게 됩니다. (중략)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참으면서 어려운 조건을 좋은 조건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또 그런 것을 알기에 사람들은 자기의 조건이 지금은 조금 좋지 않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다) 그런데 한 번 주어진 조건이 바뀌지 않고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공부를 조금 못하는 아이들은 계속 공부를 못하고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살아갈 의욕이 있을까요?

(라) 다른 조건에서 태어나고, 다른 특성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불공평한 것들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다른 조건이나 특성들이 다양성으로 받아들여지며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Blank writing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for student response.

[학생용]

책 한 권을 보는 다양한 시각, 즉 독서력과 창의력이 높아집니다.

어린이책사랑모임(어사모)회원사와 어린이 책 전문 출판사들이 모여 1년에 2번, 대략 60종의 독서 지도안을 만듭니다. 독서 지도안은 아이들 책을 가장 잘 아는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가 추천한 도서를 토대로 장르별로 선별해 만든 것입니다. 독서토론논술 지도안으로 독서 활동을 하면 책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거나 간추리는 안목이 생깁니다. 여러 명의 독서 교육 전문가가 독후 활동 주제망으로 핵심 단어를 뽑은 뒤, '독후 활동 시작하기 → 독 후 활동 주제 1 → 독후 활동 주제 2 → 독후 활동 주제 3'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독후 활동을 제시합니다. 이 독후 활동 단계를 경험하면 책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다양한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작품을 통해 생각하고, 작품에는 없는 새로운 독후 활동을 스스로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각의 독서 지도안을 만나면서 아이들은 독서력과 창의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300편의 독서 지도안 중에 좋은 책을 골라 2018년 국어 교과서에 새롭게 신설된 『독서 단원 -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독서 수업 지도안(교사용)을 만들었습니다. 독서 수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어린이책사랑모임 & 어린이책 전문 출판사

중학년을 위한, 쉽고 재미있게 읽으며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책

no	대상	출판사	제목	글	그림	번역
1	3학년	뜨인돌어린이	수상한 아이가 전학 왔다!	제니 룩슨	정진희	
2	3학년	마음이음	옹고집과 또 옹고집과 옹진이	유영소	이현정	
3	3학년	도서출판 봄별	장화 신은 늑대와 무적의 고양이 장군	엘 에마토크리티코	알베르토 바스케스	박나경
4	3학년	파란자전거	새똥 숲의 골동품	김란주	원정민	
5	3학년	스폰북	로봇 반장	송아주	이승연	
6	3학년	아이앤북	내 꿈은 엄마 꿈과 달라요	홍종의	김요나	
7	3학년	책내음	한글 탐정 기필코	김미희	이경석	
8	3학년	천개의바람	하늘이 딱딱했대?	신원미	애송	
9	3학년	키위북스	솔직하게 말할걸	가수북	정가애	
10	3학년	미래아이	고양이 여왕(저학년문고23)	엘리즈 폰트나유	셀린 르구아이	양진희
11	3학년	이마주	일기 감추는 날	황선미	조미자	
12	3학년	노란돼지	날아라 포장마차	송방순	김미정	
13	3학년	고래가속쉬는 도서관	잃어버린 자전거	최인혜	유수정	

[학생용]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29 2층
전화 031-955-9680 팩스 031-955-9682
블로그 <https://blog.naver.com/goraebook>
홈페이지 <http://www.goraebook.com>